

“온 생명은 부처”... 불교, ‘생명평화 평창선언’

월정사 등 불교 단체 11일 ‘생물다양성’ 주제 포럼서

“자연에 대한 폭력 줄이고
생명평화 문화 만들어가야”
정념 스님·불자 지식인 참여

지구촌 생명평화포럼을 지향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UNCBD-COP12, 이하 CBD)’ 본회의를 맞아 불교계가 생명평화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와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 화쟁아카데미(대표 조성택)는 10월 11일 월정사에서 국제 NGO

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 포럼에서 “2014 생명평화를 위한 평창불교선언” (이하 평창선언)을 발표했다.

‘생명평화를 추구하는 한국의 불자들’ 명의로 발표된 평창선언에는 월정사, 조계종 환경위원회, 화쟁아카데미, 로터스월드, 불교생명윤리협회 등 불교 사찰·단체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법인 스님, 성진 스님, 태고종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 이종표 전남대 교수, 이병인 부산대 교수, 우희중 서울대 교수, 이병인 부산대 교수, 우희중 서울대 교수, 박병기 한국고원대 교수, 이도홍 한양대 교수 등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이들은 평창선언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은 이제까지 생물종의 보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여전히 생명을 이용의 대상이나 경제적 가치로만 보는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연에 대한 폭력적 지배를 근간으로 삼아온 생활양식을 종식하고 자연과 인간이 서로 평화 속에서 공존하는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모든 생명은 우주적 존재임을 알고, 인간은 모든 생명에 책임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선언 참가자들은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모든 생명을 이용해온 삶을 먼저 참회하고 모든 생명들 ‘덕분에’ 자신

이 살고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되갚아야 한다”면서 “우리 인간은 자신이 끊어놓은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생명들 사이의 형성성과 권리를 지켜 지속가능한 생태적 순환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선언에 앞서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의 기조발제에 이어 전나무 숲길 걷기, 차담 등 불교의 생명존중 가치를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국제 NGO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월정사와 환경위원회, 화쟁아카데미는 9~10일 월정사에서 ‘생물 다양성을 바라보는 불교의 생명가치’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조계종 중앙종회의

원 법인 스님이 ‘불교의 생명사상과 생명윤리’를, 환경부 CBD 기획단 이재호 박사가 ‘생물 다양성논의의 오늘과 내일’을, 유정길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이 ‘불교의 생명사상과 지속가능한사회’ 등을 각각 주제 발표했다. 토론자로선 이병인 부산대 교수, 우희중 서울대 교수, 임수연 광주전남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10월 17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열리는 CBD에는 194개국 당사국 대표단을 비롯해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 대표,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등 2만여 명이 참석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가 자행’ 폭력 상처 치유와 해법 모색한다

불시넷, 10.27법난 기념사업 개최

1980년 국가에 의해 불교계의 권리와 명예가 유린당한 ‘10·27법난’ 34주기를 맞아 그동안 국가에 의해 자행된 차별과 폭력의 사례를 살펴보고 치유와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10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10·27법난 기념사업-국가폭력, 성찰과 치유의 길을 찾아’를 진행한다. 기념사업은 서울 조계사 안심당 3층법당에서 진행되는 ‘텔레이강연’과 국가폭력의 현장과 치유의 현장을 돌아보는 ‘현장탐방’, 국가폭력에 의한 고통에서 벗어날 해법을 모색하는 ‘치유워크숍’ 등으로 구성된다.

‘잊혀진 목소리를 다시 듣다’를 주제의 텔레이강연은 10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열린다. 강연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의 ‘군인권선에 숨겨진 군대 내 폭력’ 강연을 비롯해 장경욱 변호사의 ‘정치적 이념의 다른, 무엇이 문제인가’, 박경석 전

10월16일~11월 29일까지
강연·탐방·워크숍 진행돼
군대·노동 폭력 등 조명

국가인권위원회장인 공동대표의 ‘장애인, 죽어야 사람인가’, 신영숙 새움터 대표의 ‘미군위안부 숨겨진 진실’, 임지운 반올림 변호사의 ‘국가를 지배하는 기업의 출현’, 한재운 한국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 대표의 ‘존재를 지우는 폭력-성적 소수자’ 등이 진행된다.

국가폭력에 대한 성찰과 치유의 현장을 돌아보는 현장탐방은 10월 30일~11월 1일 2박3일간 김근태 치유센터와 팽택 상용차 해고자 치유공간 ‘와락’, 햇살센터, 노근리 평화공원, 광주트라우마센터 등을 돌아본다. 11월 29일 오후 1시에는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드러내고 다시 함께’ 주제로 치유워크숍이 열린다.

불시넷은 “국가폭력은 여타의 다른 폭력과 달리, 그 근본주체가 국가라는 하나의 거대한 권력기관만큼 그 폭력의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상처를 남긴다”며 “불교적 관점, 즉 연기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생명과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을 고양해야 할 국가에 의해 자행된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야만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10·27법난 기념사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온 장애인, 군인, 기지촌 성매매 여성, 성적소수자 등이 그동안 국가로부터 어떤 차별과 폭력을 받고 어떤 고통을 겪어왔는지 성찰하고, 그 고통을 극복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10월, 깊어가는 가을 산사서 행복 에너지 충전하세요

문화사업단 선정 가을 템플스테이 3選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다. 곧 전국 산천은 울긋불긋한 단풍 옷으로 갈아입고 사람들을 맞이한다. 깊어가는 가을 한복판에서 찾아가는 산사는 아름다운 풍경과 추억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10월 7일 본격적인 단풍 시즌을 맞아 맞춤형 템플스테이를 선정해 발표했다.

지리산의 품에 안겨 생생한 건강 에너지를 채우고 싶다면 **산행 대원사(055-974-1112)**로 떠나자. 대원사에서선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으로 이끄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명상상담은 물론, 마음치유, 약초를 통해 체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활용법 등 독특한 체험 프로그램이 특징이다.

특히 ‘몸 생생’은 지리산 계곡 포탕, 약초 찜질, 맹세이갈 생대체험 등 건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다. ‘마음 생생’은 108 에니어그램 마음분석, 명상일지를 통한 삶의 습관 점검 및 다양한 명상법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평소 소홀히 하기 쉬운 마음의 건강 지수를 돌아본다.

온 가족이 함께 ‘기차’ 노는 템플스테이를 상상해 본 적 있는가. **영암 도갑사(061-473-5122)**에서 웃음 에너지를 채우는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기다리고 있다.

월출산 자락에 안겨 있는 도갑사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노는 게 제일 좋아’는 월출산 홀로 걷기, 스님과 놀기 등, 활기를

불어넣는 놀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달 1회 진행되는 ‘행복 충전놀이’, 연 4회 운영되는 ‘氣차게 놀자’는 월출산 산행, 행복충전놀이로 자연 속에서 잘 놀고, 일상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색다른 체험을 제공한다.

문득 홀로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에는, 자아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양평 용문사 템플스테이(031-775-5797)**가 제격이다. 새로운 것, 특별한 것만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오래되고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 건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을 얻어 보자.

‘나를 챙기다’ 템플스테이로 잘 알려진 용문사에서는 새벽 예불, 건강 챙김 108배, 타종 체험, 스님과의 차담, 뽕잎 밥 체험 등의 상시 운영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이밖에도 전국의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서는 스쳐가는 가을,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성민 기자



아름다운동행은 조계사부터 봉은사를 걷는 ‘비움과 나눔 108DAY - 2014 아빠와 함께 아름다운 밤길 걷기’를 10월 8일 개최했다. 참가비 10,800원은 전액 탄자니아 학교 건립기금으로 기부됐다. 사진=박재완 기자

아빠와 함께하는 도심 달빛 산책

동행, 108데이 맞아 비움·나눔 걷기 대회

“10월 8일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날이죠?”

“생일이요. 결혼기념일이요. 새 아파트 열쇠 받은 날이요. 아들과 단둘이 처음으로 외출한 날입니다.”

저녁 9시 조계사에 모인 3백여명에게는 10월 8일이 기념일을 넘어 ‘나눔데이’로 자리잡게 됐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비움과 나눔 108DAY - 2014 아빠와 함께 아름다운 밤길 걷기’를 개최했다. 저녁 10시 조계사를 시작으로 10월 9일 새벽 4시 봉은사까지 14km를 걷는 코스였다.

참가비 10,800원은 모두 아프리카 학교

건립기금으로 기부됐고 참가자들이 가져온 불펜, 색연필 등의 학용품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전한다.

10월 8일은 아름다운 동행이 비움과 나눔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3년 전부터 ‘108 DAY’로 지정, 매년 일반인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이 사찰 순례와 함께 도심 달빛 산책을 걸으며 가족애를 느낄 수 있도록 걷기행사를 열었다. 걷기를 통한 몸의 비움,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마음을 비우는 행사였다.

최연소 참가자 배종현(6) 군의 어머니 현영주씨는 “아이 생일이 10월 8일이다. 나

를 낳아준 아이로 자라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매년 기부를 해왔는데 얼마 전에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기부라는 말을 배워왔다. 올해는 온 가족이 나눔에 동참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녀 이정린(11)양과 참석한 이석중씨 역시 “달과 밤을 지새우며 이야기를 나눈 경험이었다. 우리 가족에게 오늘이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행사는 어린이 치어리딩 공연을 시작으로 가족과 나눔 레크리에이션, 몸풀기 체조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손에 야광공손을 들고 밤길을 밝혀가며 걸었다. 코스 중간마다 기부유형알기, OX퀴즈, 기념촬영 등의 미션을 수행한 참가자들은 봉은사에서 108배로 회향했다.

배현진 기자



세계를 거꾸보는 자비 실천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는?

너와 나 그리고 세상이 하나임을 깨달아 종교, 민족, 이념의 경계를 넘는 보편적 인류애를 실현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2003년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창립한 국제개발협력 NGO입니다. www.goodhands.or.kr

후원문의 02.3409.0303

후원계좌
국민은행 337101-04-019295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
농협 100026-55-003657 (사)지구촌공생회
우리은행 1005-501-776078 (사)지구촌공생회

※ (사)지구촌공생회는 공익성 지경기부금 단체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만드는 생명의 손

캄보디아, 몽골, 미얀마, 케냐에 총 2,204기의 생명의 우물과 물탱크를 건립해 20만 명의 지구촌 이웃들에게 급수공덕(給水功德)을 실천해 왔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희망의 손

아시아와 아프리카 8개국에 유치원 13개원, 초·중·고 30개교, 청소년센터 4곳 등 총 47개의 교육시설 건립으로 지구촌 5만 명 아이들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지역을 개발하는 자립의 손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삶이 황폐해진 유목민들과 빈곤국가 주민들에게 5곳의 농장과 공동 작업장에서 소득 증진을 통한 자립과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지원합니다.



이사장 송월주 이사 자승 이사 도영 이사 성타 이사 설승 이사 도원 이사 평상 이사 지홍 이사 선묵 이사 원행 이사 지현 이사 정념 이사 성우